

G2 정상회담, 전술적 화해기간 재확인 기대. Risk-On 뒷받침

- G2 정상회담, 주요 의제 '관세, 무역, AI, 희토류', 그 외 이란 전쟁, 대만 문제
- G2 정상회담, 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보다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쥔 시진핑
- 양국 갈등관리 무게. 美, 中 고율관세 부과 유예, 글로벌 증시, 상승 뒷받침

24일 G2 정상회담 전, 20일부터 고위급 '관세, 무역, AI, 희토류' 등 주요 현안 논의

20일 허리띠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킷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 정상회담 전까지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주요 의제는 크게 4가지로 관세, 에너지·농산물, 희토류, AI가 해당된다. 우선 최대 관심사는 올해 11월 만료되는 양국 간 관세 휴전의 연장 여부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년 간 상호관세와 보복 관세 및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유예 중이며, 양국은 비민감 상품을 중심으로 추가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측은 미국산 농산물과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에너지·농산물 의제는 중국이 미국산 LNG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묶은 패키지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희토류 의제는 미국이 중국에 희토류 자석과 핵심 광물의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AI는 새롭게 부상한 의제로 양국이 AI 위험과 위협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AI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AI 관련 안보 위협이나 사고 발생 시 상호 통보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했지만,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G2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어느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G2 정상회담의 경제, 무역 분야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이번 G2 정상회담, 미국보다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쥔 중국. 대만 문제, 대미 수출 중요성 감안 시 중국도 긴장 수위를 조절할 당위성 갖춤

이번 G2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갖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선언 이후 고율관세와 수출 규제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하면서 초기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지지율 하락 부담을 안고 있어,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에도 수출 호조를 이어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달러를 웃도는 무역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란 전쟁 종식에 협조하기를 원하는 미국 상황 감안 시 협상 우위에 놓여 있다. 다만 중국도 대만문제, 올해 경제성장률 4.5~5% 성장 목표 달성과 소비, 투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미 수출의 중요성 부각으로 미국과의 긴장 수위를 조절할 당위성을 갖췄다.

양국 갈등 관리 무게. 전술적 화해기간 재확인.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유예 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

이번 G2 정상회담 결과가 원론적 수준에 그쳐도 11.9일 만료되는 양국 간 무역 휴전 연장(6개월 또는 1년) 시, 전술적 화해기간이 재확인되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G2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양안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중국은 그 대가로 트럼프에게 중간선거를 앞둔 상업적 합의(에너지·농산물 구입), 이란 전쟁 중재를 선물할 가능성도 있다. G2 정상회담은 Risk-On을 뒷받침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표 1. 26.9 월 미중 정상회담 일정

날짜	일정
9.20 일	뉴욕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주관 고위급 실무 회담
21 일	미중 실무그룹 협의 지속 예정
23 일	시진핑 국가주석, 워싱턴 D.C 교외 도착 (트럼프 대통령, 직접 영접)
24 일	백악관 정원 환영식 미중 정상회담 머스크 등 기업인도 참석하는 공식 만찬
25 일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하는 비공식 다과회 양국 정상, 국립문서보관소 관람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귀국길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2. 26.9 월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

구분	쟁점	현재 상황	향후 전망
무역 및 관세 휴전 연장 논의	관세 휴전	2025 년 11 월 10 일 ~ 1 년간 유예 만료	즉시 연장보다는 단계적 연장 가능성
	비민감 품목	양국, 각각 300 억 달러 규모 설정	무역위원회 통한 관세 인하 협의
	미국 측 요구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구매 확대	시장 접근 개선 요구
	중국 측 대응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 완화 기대	수출 제한 해제와 연계 가능성
구분	논의 항목	미국 측 제안 및 관점	중국 측 제안 및 관점
인공지능 안전 및 규제 협력	사고 대응	상호 통보 체계 구축 제안	대화 지속 합의
	위험 관리	국가 안보 수준의 사고 판단	공동 위험 인식 필요
	발전 속도	빠른 개발 경쟁에 따른 위험 관리	기술 경쟁력 보호
구분	분야	미국의 요구	중국의 요구
핵심 광물 공급망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와 경쟁 견제	첨단 기술 접근 제한 완화
	희토류	중국산 희토류 자석의 안정적 공급	수출 제한 철폐와 기술 규제 완화
	핵심 광물	공급망 불확실성 감소	무역 · 기술 분야의 호혜적 조치
	공급망	특정국 의존도 낮추기와 안정 확보	산업 경쟁력과 수출 통제 유지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3. 26.5 월 미중 정상회담 성과

분야	합의, 논의사항	성격
경제 무역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 논의	제도적 협의 창구 마련
기술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 신설	안전 사고 통보 절차 논의
산업	핵심 광물, 농산물, 항공기 협력	일부 구매와 교역 확대
문화	중국 문화재, 화석 58 점 반환	합의 이행 사례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 추진(26.9 월)	정상 간 접촉 확대
안보	대만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 논의	명시적 합의 미도출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 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